“유골함 침수 5·18묘지 2묘역, 정비 해법은 ‘1·2묘역 통합’”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 강수로 인한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 /뉴시스

국가보훈부, 2묘역 배수시설 공사 예산 산출 중
유골함 밀봉 방식 개선, 구체적 내용 확정 안돼
근본 문제 해결책 1·2묘역 통합은 “자료로 활용”
5·18 유공자들 “정비는 미봉책, 서둘러 통합을”

국가보훈부(보훈부)가 유골함 침수 피해로 유공자 예우 논란이 불거진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안이 여전히 수립·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후 안장 대상자인 생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사이에서는 정비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침수 방지·형평성·추후 안장 수요 등을 고려해 1·2묘역을 통합하는 안을 서둘러 추진하길 촉구하고 있다.

8일 보훈부에 따르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내 2묘역 내 배수 시설 공사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보훈부는 관련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산 규모를 산출·검토하고 있다. 공사 로드맵도 이 과정에서 확정돼 함께 제출될 전망이다.

함께 약속했던 봉안묘 내 유골함 밀봉 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묘역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2017년부터 안장을 시작한 5·18묘지 2묘역은 2023년 이래 유공자 유해가 담긴 유골함 침수가 3차례 확인됐다. 보훈부가 공식 파악한 연도별 침수 피해는 2023년 2기, 지난해 1기다.

침수 유골함은 먼저 안장된 유공자 묘에 별세한 배우자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파묘한 장례업체가 발견했다. 이후 물에 잠긴 유골함에서 유해만 꺼내 재화장한 뒤 다시 안장했다.

2묘역은 실제 2~30㎜ 비만 내려도 곳곳에 물웅덩이가 고이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2묘역 곳곳에 빗물이 오랜 기간 고였다.

장례업계에서도 2묘역에 대해 “지대는 높지만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곳인데다, 묘지의 표토층 역시 밀도 높은 황토 성분이 많아 지표면 위아래에 물이 수시로 고인다”고 설명한다.

보훈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추가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2묘역 내 원활한 배수를 위해 2020년 빗물배수로 설치, 2021년 배수공사 등 침수 피해 방지 노력을 해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안장된 유골함을 열어야만 실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2묘역 내 추가 침수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공자들은 보훈부가 내놓은 배수시설 정비 결정에 미봉책이라고 지적, 민주묘지가 내놓은 1·2묘역 통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5·18묘지관리사무소는 지난 2022년 국립묘지 승격 20주년을 맞아 ‘1·2묘역 통합 신묘역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용역’에 나선 바 있다.

2묘역을 기존 1묘역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안장 대상자 등 유공자 3900여 명을 한 묘역에 모으자는 취지다.

특히 예로부터 제기돼오던 2묘역에 대한 침수 의혹 불식, 1묘역과 수백여m에 떨어진 2묘역에 묻히는 유공자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용역 추진 배경에 크게 반영됐다.

지난 1월 발표된 용역 결과 782기 규모의 1묘역은 그대로 둔 채 중앙 참배광장(1만2000여㎡)에 2묘역 안장자를 포함, 3900여기 규모 묘역을 조성하는 내용 등 3가지 안이 공개됐다.

관리사무소는 실시 계획 작성과 인·허가 검토 등에 최소 21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비는 최저 137억원에서 최고 187억원까지 추산됐다.

5·18부상자회 한 회원은 “토양 자체가 묫자리로 적합하지 않은 2묘역에 배수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도 얼마나 달라질지 우려스럽다”며 “2묘역은 언젠가부터 생존 유공자들이 묻히길 꺼려하는 곳이 됐다. 보훈부는 유공자들의 의견을 들어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5·18 유공자도 “먼저 숨졌다는 이유 등으로 1묘역에 묻힌 유공자들과 비교해, 생존 유공자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훗날 2묘역에 묻히게 된다. 더군다나 물까지 들어찬다니 누가 묻히고 싶겠는가”라며 “침수와 형평성의 문제가 동시에 있는 2묘역은 정비로 끝날게 아니다. 해법은 1·2묘역 통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보훈부 관계자는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의 용역 결과만을 토대로 묘역 상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용역 결과에 1·2묘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조사 내용과 제기돼온 민원 등이 담겨있는 만큼 민주묘지 내 추후 안장 수요 등을 검토하는데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권철 기자

전남도, 20개 전체 도축장 식중독 집중 검사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기온 상승과 장마철 등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을 맞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내 모든 도축장 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고기를 대상으로 오염 지표 세균 등 미생물 집중 검사에 나선다.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농협축산물공판장을 비롯한 도내 도축장 20곳 모두를 대상으로, 대장균수와 일반세균수, 살모넬라균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도축장의 위생 감독을 강화하고 위생관리기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설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이 축산물 유통의 첫 단계인 만큼,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도축검사 외에도 주 1회 이상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등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 도축장 이후의 유통단계인 축산물가공장, 판매장도 수시 검사를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지영 소장은 7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축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질·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관 온도와 유통 기한 준수, 조리 시 충분한 가열, 칼·도마·행주 등의 위생관리 외에도 손 세척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민규 기자

☎062-525-9775

가족 탄 차 바다로 몬 가장… 계획살해 정황 속속

30일 무안 펜션서 하룻밤 자고 진도항 사전 방문
펜션 되돌아와 목포서 ‘영양제’ 속인 수면제 먹여
홀로 탈출해 달아나… 아내 ‘자살방조’ 혐의도 적용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한 40대 가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적인 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억대 채무에 허덕이던 부부는 세상을 함께 떠나기로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고, 고등학생 두 아들은 가족여행으로만 알고 따라나섰다가 영문도 모른 채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아버지 A(49)씨와 아내, 고교생 두 아들은 지난달 30일 가족여행에 나섰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두 아들은 학교 측에 “가족여행을 간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 당일 결석했다.

A씨 가족은 30일 오후 5시27분께 A씨가 모는 승용차를 타고 전남 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가족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무안의 한 펜션에 입실했다.

펜션은 일주일여 전인 같은 달 22일 예약돼 있었고 숙박 기간은 3박4일(5월30일~6월2일)이었다.

하룻밤을 묵은 A씨 가족은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께 진도항으로 향했다. 이미 일가족이 함께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한 A씨 부부가 이때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사전답사한 것이 아닌가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가족은 점심 식사를 하고 무안의 펜션에 다시 돌아왔다가, 같은 날 오후 6시께 다시 펜션을 나와 목포로 향했다.

목포에서 저녁식사를 먹은 가족은 31일 오후 10시30분께 목포 평화공원에 들렀다. A씨 부부는 공원 주차장에 세운 차량에서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속인 수면제와 병 음료를 건넸다.

수면제는 조울증 증세가 있던 아내가 처방 받았으며 병 음료는 부부가 사흘 전 동네 약국에서 산 것으로 파악됐다.

잠이 든 두 아들을 태우고 A씨 부부는 진도항으로 다시 향해 이달 1일 오전 0시49분께 진도항에 도착했다. 운전자였던 A씨는 조수석에 탄 아내와 수면제를 나눠 먹었고, A씨는 오전 1시12분께 차량을 바다로 몰아 돌진했다.

바다에 빠진 차량 안으로 물이 들어차자 A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조수석 창문 틈으로 홀로 빠져나왔다. 어촌 태생인 A씨는 헤엄 쳐서 인접한 다른 선착장까지 다다랐다.

차량이 빠진 지 40분여 만에 뭍으로 올라온 A씨는 소방 당국이나 경찰에 가족의 구조 신고는 하지 않았다.

육지에 다다른 직후 A씨는 공용화장실에서 4시간여 머물다가 나와서는 인근 야산으로 숨어 하룻밤을 잤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38분께 한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전화를 빌려 형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했다. A씨의 형은 일용직 동료이자 지인이었던 B씨에게 연락했다.

2일 오후 6시16분께 항만에서 약 3㎞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 A씨는 지인 B씨와 만나 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 도착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9시9분께 광주 도심에서 긴급체포됐다. 범행 44시간 만이었다.

A씨는 경찰에 “가족과 함께 생을 마치려 했다. 차가 빨리 물에 잠기도록 운전석·조수석 창문을 열었다. 입수 직후 막상 차에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서 홀로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에 비춰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범행에 쓰인 수면제를 아내가 처방받았고, 부부가 두 아들부터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진도항까지 함께 향한 만큼 부부가 생을 마치는 결정을 하고 미리 계획했다는 추론이다. 입수 직전에야 부부가 수면제를 동시에 먹은 점 등도 석연치 않다.

때문에 경찰은 A씨에게 두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 외에도 자살방조 혐의까지 적용했다.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보험 가입 내역도 살펴봤으나 부부 앞으로 각기 가입된 건강보험 2건 외에는 눈 여겨 볼 만한 사항은 없었다.

앞으로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3대와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 전자 법의학 감정(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해 범행 전후 경위를 정확히 밝혀낼 방침이다. /송현근 기자